

번역학의 어제와 오늘

김 지 원
(세종대)

I. 들어가며

문화의 세계화를 통칭하는 이른바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번역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사실 우리는 번역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번역 현장은 안타깝게도 시대에 뒤떨어져 구태의연한 실정이다. 번역의 성격 및 원리에 대한 규명조차 미흡하고 방법론과 기교에 관한 논의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번역 능력에 대한 평가와 번역 비평의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번역본의 엄청난 양산과 번역 교육에 대한 무수한 자료의 출간과는 대조적으로 번역자 양성을 위한 시험과 인증제는 좀처럼 정착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요컨대 번역 관련 제문제들에 대한 조사와 탐구를 아우르는 번역학이란 그간 꽤 친숙해졌는데도 여전히 신생 학문의 틀을 온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번역’이란 용어는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사

용되어 왔다. 그 결과 사람들은 대체로 번역학을 아주 오래된 기성 학문이라고 막연하게 여겨 왔다. 그렇지만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번역학이란 용어는 비교적 최근해야 사용되기 시작했다. 수잔 바스넷(Suzan Bassnett)의 주장에 따르면, “1978년에 앙드레 르페브르(André Lefevre)는 문학과 번역에 관한 1976년도 루벵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에 붙인 짧은 부록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였고, 그것은 ‘번역작을 생산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번역학(강조는 원저자의 것)이라는 명칭을 채택하자는 것이었다”(Bassnett 1991: 1). 하지만 그 후 사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번역 연구가 하나의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착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번역의 역사는 사실상 언어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기에 언어의 역사적 정황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기독교 문화에서 보면 번역의 필요성은 하느님이 인간의 오만의 상징인 바벨탑을 내려다보며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 순간부터 생겨났다. 그러니까 번역의 궁극적 이상은 바벨탑 이전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인간 언어의 통일성 회복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실재가 언어와 동일시될 수 있다면 그 언어는 또 다른 언어와도 동일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 의해 언어와 대상의 관계가 자의적이라고 선언된 이래 실재와 언어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언어와 언어간의 완전한 등가를 지향하는 번역은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실제로 언어와 언어를 연결하는 번역 작업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과 요인들로부터 규정되는 과정이다. 거기에는 SL 텍스트의 생산자, TL¹⁾ 텍스트의 수신자, 그리고 SL 텍스트를 TL 텍스트로 옮기는 번역자 등 삼자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전문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번역 행위에서 중심 개념은 부호와 그 부호의 교체이다. 부호의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는 부호의 교체 작업을 수행하는 번역자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착언어 텍스트의 수신자는 출발언어 정보의 수신자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부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번역자는 “SL 텍스트의 ‘특권 받은 독

1) SL과 TL은 각각 ‘Source Language’와 ‘Target Language’의 약어인데, 본 연구에서는 필요에 따라 이 용어 대신에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출발언어’와 ‘도착언어’, 또는 ‘일차언어’와 ‘이차언어’라고 달리 표기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자”(Hatim and Mason 224)이다. 그는 원천언어나 목표언어의 일반 독자들과는 달리 생산하기 위해 읽고, 다시 기호화하기 위해 기호를 해독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번역자는 일반적으로 출력(output)을, 즉 보통 독서 과정의 끝이 될 정보를 번역 과정에서 입력(input) 정보로 사용한다. 물론 이때 번역자의 과제는 부호 교체 과정에서도 텍스트의 정보 내용을 불변체로서 유지하는 데 있다.

번역학이 뒤늦게 출발한 가장 큰 원인은 외국어 교육자들이 번역을 교육과정상의 필수 도구로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독자적 연구를 병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번역과 관련하여 우리의 인식 속에 오랫동안 고착화된 오류가 하나 있다. 그것은 번역 과정에서 두 언어 간에 표면적 의미를 간직하고, 원천언어의 구조를 가능한 한 유지하되 목표언어 구조를 심하게 왜곡시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오랜 번역의 역사에서 번역자의 지위가 대체로 낮게 평가되어 온 것도 따지고 보면 번역의 개념이 이렇게 좁은 범위로 한정된 때문이다. 이러한 번역관에 따르면 번역은 종속적이고 파생적인 기술일 따름이다. 그 때문에 번역작은 원작에 비해 현저히 경시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번역의 가치에 대한 평가 절하는 번역작에 요구되는 기대치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번역의 성격에 대한 이 같은 오해는 번역의 낮은 위상에 일조 했으며, 번역의 중요성이나 어려움은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

번역 행위가 이루어지는 번역의 과정과 거기에 부과되는 조건 및 요인들을 통찰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번역 이론이다. 그 이론은 번역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반 문제들의 해명에 기여하며 이른바 번역학이라는 학문의 기반을 형성한다. 결국에 번역학의 목적은 앙드레 르페브르가 주장하는 대로 “번역본을 생산해내기 위해 지침으로 사용할 포괄적 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1978: 234)이다. 번역의 제이론들은 학문으로서의 번역학 성립을 위한 전제 조건일 뿐만 아니라 번역학이 실제에의 적용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실제의 적용을 위해 번역학은 일차언어를 이차언어로 옮기는 과정으로서의 번역 행위와 그 과정의 결과로서 나온 번역물을 구체적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의미에서 번역학이란 텍스트가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전이되는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다른 학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론과 실제간에 밀접한 관계가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기에 번역학자들은 이론과 실제의 연결에 특히 주목해 왔다.

번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실제적인 경험을 이론적 토론의 장으로 연결 시키거나 이론적 바탕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번역 연구가 궁극적으로는 번역학이 지향해야 할 기본 방침이겠지만 신생 학문이란 점을 감안해 보면 그것은 현실성이 희박한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번역학의 정확한 자리매김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번역이 다루어야 할 영역과 대상을 바르게 설정하고 번역 행위의 과정을 심도 있고 다양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번역의 발전 단계를 통시적으로 추적, 검토하여 올바른 번역학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물론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번역학이 비교문학 연구의 하위 범주도 아니고 언어학의 특별한 영역도 아니며 많은 광범위한 부문을 지닌 복합적이고 독자적인 학문임을 논증하기 위함이다.

II. 번역학의 형성기

번역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성립하기까지의 역사적 단계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것은 장구하고도 복잡다단하다. 문헌상에 나타난 번역의 역사는 로마시대로부터 비롯되었다. 성서 번역의 역사는 어쩌면 “미시적인 서구문화사”(Bassnett 1991: 46)라 할 만큼 서양 문화의 핵심적 요소이다. 특별히 영어권에서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번역학의 생성이 느리게 진행되었다. 수잔 바스넷은 “앵글로-색슨족의 강한 반(反)이론적 전통이 19세기 영어권 세계에서 일어난 ‘하인-번역자’라는 유산과 절묘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번역학의 발전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1991: 3)고 강조한다. 영국의 번역 이론은 18세기 존 드라이든(John Dryden)에게서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영어 번역의 최초 입법자라 할 수 있는 드라이든은 「오비디우스 서한집 서문」(“Preface to Ovid’s Epistle”)에서 번역의 유형을 “직역”(metaphrase), “의역”(paraphrase), “모방”(imitation) 등 세 가지로 제시하고 나서 가장 바람직하고 균형 잡힌 형태는 “피해야 할 양극단인 직역과 모방 사이의 중간,” 즉 의역이라고 주장했다(102-105). 드라이든은 또한 원작자의 정신과 생각은 “신성하고 침범할 수 없는”(105) 것이라는 가정 하에 번역자가 문학 텍스트를 번역할 때는

동시에 작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여기에는 번역작이 원작의 종이라는 의식이 저변에 짙게 깔려 있다. 드라이든은 번역자가 시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시인이 되어야만 하고 두 언어에 능통해야 하며, 그가 속한 시대의 미학적 규범을 따라야 할 뿐 아니라 원작자의 특성과 정신을 잘 이해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18세기에는 유럽의 여러 언어들로 쓰인 번역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많은 연구 업적이 쏟아져 나왔다. 1791년에는 최초의 영어 번역 이론서인 알렉산더 타이틀러(Alexander Tytler)의 『번역의 원리』(*Essay on the Principles of Translation*)가 출간되었다. 이는 번역 과정에 대해 영어로 쓰인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서이다.²⁾ 타이틀러는 원작의 일부를 삭제하고 다른 내용을 첨가해서라도 원작의 모호한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번역자의 의무 중 하나라는 점에 있어서는 드라이든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의역’의 개념이 지나치게 부정확한 번역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드라이든이 번역에 끼친 영향에 반감을 표명하였다. 타이틀러는 번역자/초상화가라는 18세기의 비교 기준을 이용하여 번역자가 원작과 똑같은 색조를 사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의 그림에 반드시 원작과 똑같은 힘과 효과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번역자는 반드시 원작자의 영혼 그 자체를 받아들여 자신의 목소리로 말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드라이든에서 타이틀러에 이르기까지 번역 이론은 예술 작품의 본질적인 정신, 영혼, 혹은 본질을 재창조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형식적 구조와 내재적 영혼 사이를 구분한 예전의 확신적인 이분법은 점차 결정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작가들이 점차 그들의 관심을 예술가의 도덕적 역할에 대한 이전의 강조로부터, 그리고 콜리지(Coleridge)가 기술한 이른바 “가면만을 생산할 뿐 살아 숨쉬는 생명의 형태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고통스런 모사(模寫)”(“On Poesy and Art”)로부터 멀어져 상상력 이론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19세기 초에는 지난 수세기 동안 그러했듯이 작가가 여전히 번역을 자신의 타고난 문체를 개발하고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진지하고 유익한 방법

2) 타이틀러(Tytler)의 이 책은 1789년 조지 캠벨(George Campbell)의 『4복음서』(*The Four Gospels*)가 나온 직후 간행되었는데, 그 중 제 1부에 성서 번역의 이론과 역사에 대한 연구가 실려 있음. 타이틀러의 『번역의 원리』는 J.F. 헌츠맨(Huntsman)의 유익한 서론과 함께 *Amsterdam Classics in Linguistics*, vol. 13 (Amsterdam: John Benjamins B.V., 1978)으로 재간행됨.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번역자의 위상에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마추어’ 번역자들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은 영국 외교관들)의 수가 증가했다. 당시에 이런 번역자들이 번역을 하는 목적은 원작의 형식적인 면을 충실히 분석하기보다는 주어진 작품의 내용을 전파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었다. 민족주의 정신과 민족의 언어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면서 문화간 경계가 점차 확연히 구분되었고, 번역자는 점점 창의적인 예술가가 아니라 원전과 관련하여 주인-하인이라는 관계 속의 한 요소로 간주 되었다. 그리하여 1861년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Dante Gabriel Rossetti)는 번역자란 작업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창조적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고 공언하였다(175-79).

이와는 정반대로 에드워드 피츠제럴드(Edward Fitzgerald)는 1851년에 페르시아의 시를 번역하면서 번역자의 자유재량권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 페르시아 시인들의 시를 번역함에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내 생각에 페르시아 시인들은 그러한 일탈로 누군가를 놀래 줄 만한 위인들이 못되며, 정작 그러한 탈선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시적 감각을 좀더 갖추어야 할 사람들이다”(“Letter”).

이러한 두 가지 입장, 즉 원작자가 봉건주의적 군주로 행세하며 번역자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수직적 계급 관계를 형성해온 입장과, 번역자에게 원작의 열등한 문화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는 또 다른 수직적 계급 관계를 형성해온 입장은 모두 19세기 식민 제국주의의 성장과 잘 부합한다. 이러한 양면적 입장에서부터 20세기의 번역관이 모호성을 띠게 되었다. 왜냐하면 번역을 비천한 직업으로 인식할 경우 하인에 의해서 이용되는 기술을 분석함으로써 번역의 품위를 높이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이고, 원전을 개량하기 위한 사명을 띠고 개인이 수행하는 실질적 행위로 볼 경우에는 번역 과정의 분석으로 인해 기성 계급 체계가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영어권 세계에서 번역에 대해 상반된 태도가 나타난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번역의 과정은 탐구하지 않은 채 번역 텍스트의 사용에만 점차 더 의존하는 교육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영국과 북미의 학생들이 그리스, 로마의 작품들을 번역본으로 읽거나 주요 19세기 산문 또는 20세기 연극 대본을 공부하면서 마치 그것이 원래 영어로 쓰인 듯이 대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번역 논의 중에서도 가장 큰 아이

러니이다. 학계에서 전통적으로 지위가 낮다는 이유에서 번역을 과학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을 부인한 바로 그 학자들이 수많은 번역본을 모국어만 아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주중 관계에 입각한 19세기 번역관은 20세기 전반기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번역학의 발전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때까지만 해도 번역작의 위치는 원작보다 분명히 떨어지는 것으로 대개 간주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번역이란 초라한 것, 즉 재능도 창의력도 별로 필요 없는 행위이자 훈련받은 문필가에 의해 기계적으로 수행되고 약간의 재정적 보답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였다. 번역이 처해진 종속적이고 불행한 위치는 자연히 번역작의 가치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졌고, 번역에 요구되는 기준 또한 낮아졌다.

번역이 종속적 지위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 들어서이다. 이후 번역은 본격적으로 언어학자들의 시선을 끌면서 언어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개별 과학으로서의 언어학에 대한 관심이 다각도로 기울여졌고, 또 기계번역이 실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번역에 대한 연구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번역은 그 자체가 언어적인 국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언어학의 놀라운 발전과 함께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베르너 콜러(Werner Koller)는 『번역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러한 발전 배경과 관련하여 “일련의 번역학자들, 특히 라이프찌히(Leipziger) 번역학파가 번역학을 언어학의 분과학문으로 이해하여 이를 번역언어학이라고 한다”(박용삼 98)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물론 당시 번역언어학의 대상은 언어적인 과정으로서 번역행위의 연구였다. 언어학이 구체적으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학문으로 확립됨으로써 번역도 마찬가지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번역의 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번역학은 새로운 학문으로서 떠오르게 되었다.

언어학에 방향을 맞춘 번역학이 하나의 텍스트 장르로의 제한이라는 희생을 치르고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번역행위는 순수한 언어적 현상으로서만 고찰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번역언어학으로서의 번역학과 의사소통학으로서의 번역학이 구분되게 되었다. 전자가 협의의 의미에서 과학, 기술 텍스트의 등가 관계들을 찾아내는 소극적인 기술에 국한시킨 데 반해 후자는 광의의 의사소통학으로서 원칙적으로 한 언어 내에서

소통하는 것과 구별이 안 되는 여러 언어들 사이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행위로써 파악되었다.

언어학과 의사소통학을 통합한 현상으로서 새롭게 등장한 번역학은 20세기 중반 이후 특히 영어권에서 빛을 보게 되었다. 존 캣포드(John Catford)는 일반 언어학 이론을 가지고 번역에 대한 논의의 장을 새롭게 연 학자이다. 그는 구조주의 언어 이론을 바탕으로 번역 이론을 세워 번역 문제에 대해 구조주의적 개념을 적용시키려고 시도했다. 자연스럽게 캣포드 이후에는 번역에서 두 언어간의 등가 문제가 계속 논의되었다. 사실상 언어학에 바탕을 둔 번역적 사고의 최초 단계에서 주도적인 개념은 등가였다. 그렇지만 로저 벨(Roger T. Bell)에 따르면 “총체적인 등가의 이상은 한낱 망상”(6)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두 언어도 설령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구문이나 문법, 표현 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언어학을 바탕으로 한 번역행위에 주목한 또 다른 학자인 유진 나이다(Eugene Nida)는 출발언어를 도착언어로 옮겨놓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관해 방법론적으로 접근했다. 그가 1964년에 성서해석학적 입장에서 기술한 『번역 과학을 향하여』(*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는 번역학의 발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저서였다. 제목 자체가 번역학이 아직은 일시적이고 미완결 상태를 암시해 주는 이 책에서 나이다는 의미론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그 주안점으로 삼아 언어를 인간행동의 일부로서 파악했다. 결국에 나이다의 번역 이론은 사회언어학적 입장에서 규명한 것이다.

번역이 언어적인 국면 외에도 비언어적인 국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해석학적으로 또는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형태로의 전환이 일어난 것은 1960년대 들어서이다. 물론 해석학적 접근을 시도한 학자들도 언어학에 바탕을 둔 사고에 의해 얻어진 통찰력을 이용했지만 그들은 번역과 번역자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번역은 해석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번역자는 두 개 텍스트의 중개자일 뿐 더 이상 등가의 발견자는 아니었다. 이러한 번역자들은 의미론적이기보다는 소통적인 번역작을 생산해냈다. 번역의 해석학적 연구를 발생시킨 장본인은 조지 스타이너(George Steiner)였다. 그러나 그도 이런 유형의 번역에 제기된 여러 가지 반대를 완전히 피하지는 못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번역 유포에 의해 얻어진 가장 생산적인 통찰은 양

드레 르페브르의 주장대로 “완전한 번역은 불가능하다”(1992: 11)는 결론이었다.

1965년 이래 번역학은 눈에 띄게 발전을 이룩했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체코, 동독 등의 인문학자들과 이탈리아와 소련의 기호학자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은 특히 문법학과 서술학의 발달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번역학은 문체론, 문학사, 언어학, 기호학, 미학 등 방대한 영역과의 사이에 가교를 형성하게 되었다.

번역학에서 행해진 연구 가운데 두드러진 한 가지 특징은, 언어학, 문학연구, 문화사, 철학, 그리고 인류학에서 이론 성과들과의 결합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상이한 문화에서 번역에 관한 체계적 사고(思考)의 계보(系譜) 연구라는 거대한 분야의 물꼬를 트기 위한, 그리고 문학 체계의 형성과 사상의 변천사에서 번역이 구체적으로 담당했던 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이타마르 에벤-조하르(Itamar Even-Zohar)와 기디온 투리(Gideon Toury)가 핵심 주창자인 텔아비브(Tel Aviv) 학파는 이미 1970년대에 윤곽을 드러낸, 문학의 다체계적 접근법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고, 특정 시기에 특정 문화로 번역된 텍스트가 흡수되는 전 과정을 고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다체계 이론은 하나의 급격한 발전이었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정황에서 번역된 텍스트의 역할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충실성과 등가성에 관한 무미건조한 논쟁으로부터 관심을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다체계 이론은 문학사의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며 번역사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의 길을 터놓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다체계 이론은 1970년대에 언어학과 문학 연구간에 벌어졌던 틈을 메워주었고, 번역학이 새롭게 학제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핵심적 관심은 목표 문화의 시학에 대한 강조였다. 에벤-조하르는 상대적으로 중심적이고 우세한 위치에 있는 문화보다 주변 문화권에 속하며 새롭고 불안정하고 힘없는 문화가 더 많은 텍스트를 번역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12세기 유럽의 서사시에서 로망스로 이르기까지의 변화, 르네상스 시대에 위대한 라틴어의 전통이 쇠퇴함으로써 이루어진 자국어 문학의 발달, 18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중앙 유럽과 동유럽에서의 새로운 국가들의 출현,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리카에서 더욱 많이 발견되는 포스트 식민주의 잔재 등과 같이 아주 다양한 상황들에 관한 수많은 사례 연구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번역학의 가장 큰 장애는 원작을 우위에 두고 번역작을 열등한 복제로 보려는 낡은 관습이었다. 심지어는 포스트구조주의자들까지도 단 하나의 한정적 글읽기를 신봉하는 오류를 보여주는 가운데 번역을 원작의 배반이라고 보는 생각이 널리 확산되었다. 그러나 노예로서, 원천 텍스트의 하인으로서의 번역개념에 대한 도전은 이미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정확성을 가장 중시하는 기준을 문학 번역에 적용하려는 그릇된 태도에 대해 늘 못마땅했다. 그는 자기 번역의 부정확성을 꼬집는 다른 학자들에 대해 자신의 작품을 적극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파운드는 “죽은 자에게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것”(Bassnett, 1993: 151)이라는 비유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번역자의 임무에 대한 파운드의 견해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견해와 일맥상통했다.

벤야민도 번역을 사후의 삶으로 보는 비유를 사용했고 변형 과정으로서 생명을 고양시키는 번역의 역할을 주장했다. “번역은 원작보다 늦게 나온다. 세계 문학의 중요한 작품들이 발생기 때 선택된 번역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번역작품이 계속적인 삶의 단계를 보여준다”(71). 번역은 유별나게도 특별한 행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텍스트로 하여금 다른 상황에서 삶을 지속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번역된 텍스트는 새로운 상황에서 존재를 지속시키는 덕에 그 자체가 원본이 되는 것이다. 벤야민은 번역이 정보 전달 이상의 성격을 지닌다는 전제 하에 언어의 숲이라는 비유를 들어 원전과 번역작품 간의 필연적 관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번역은 문학작품과 다르게 언어의 숲 한가운데 있지 않고, 그 숲의 가장자리에서 “언어의 숲을 바라다보며 원문을 불러 들인다”(76-77).

흔히 번역의 충실성과 자유는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지 번역자에게 있어서 얼마 만큼의 자유는 언제나 허용되었다. 따라서 번역의 언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본래의 모습에다 자유가 합쳐지기 마련이다. 근본적으로 의미의 재현을 번역의 주요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은 벤야민에게 있어서 번역은 창작에 못지 않게 자유로운 활동이었다. 그에 따르면 “다른 말의 마력에 걸려 꼼짝 못하는 순수한 언어를 그 자신의 언어로 해방시키고 또 작품 속에 간혀있는 말을 그 작품의 재창조를 통해 해방시키는 것”(80)이 번역자의 과제이다. 결국에 번역자는 순수한 언어를

위해 자신의 오랜 장벽을 무너뜨리는 셈이다.

벤야민의 논문은 후에 번역 연구가들에 의해 재발견되어 포스트모던 번역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되었다. 197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와 자크 데리다(Jaques Derrida) 등이 중심이 되어 원전의 절대적 의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글쓰기 이론을 들고 나와 기성의 문이론들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바르트는 저자의 죽음을 선언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원전의 신화를 무너뜨렸다. 또한 데리다도 원작과 번역물을 다루면서 원작의 우월성에 대해 더욱 신랄하게 공격하고 나섰다. 그에게 있어서 원천 텍스트는 고유한 것이 아니며 기존하는 생각이나 의미의 정교한 배열일 따름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원전 자체도 하나의 번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의 번역에 대한 생각의 논리적 결과로 원작과 번역작이라는 이분법이 완전히 분쇄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와서야 진정한 의미에서 복수성이 원천 텍스트에 대한 충실성의 논리를 대신하고, 원조의 개념이 보다 강하게 사방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었다. 번역학의 점차적인 발전과 함께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치 아래 신진 번역 이론가들은 원문의 지배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번역과 관련된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는 유럽과 미국 학자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번역학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로서 흥미롭고 혁신적인 연구 활동이 유럽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브라질과 캐나다에서 번역자들이 제기하고 나선 번역 이론들은 특별히 흥미를 끌었다. 이것들은 번역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메타포와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해 주었다. 번역은 현실에 대한 부차적이고 조정적인 관계의 명백한 재현이다. 그러기에 서구 문화의 권위적인 규약에 주변적이라고 스스로 느낀 사람들에게 번역은 주도적인 문화 속에서의 모호한 체험에 대한 은유를 나타내주었다. 이주민들이나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번역된 존재들”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로 “모호성, 즉 힘의 언어 속에서 편안하지 않은 감각”(Simon 134) 때문이었으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힘의 언어 속으로 번역해 온 결과였다.

III. 번역학의 발전기

1980년대에 번역학은 새롭게 부상한 분야인 여성학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일대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별히 여성의 언어가 존재하는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사방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번역에 관한 왕성한 연구 업적들은 번역학이 발전 단계에 있는 새로운 분야임을 보여주는 징후였다. 1980년대에 실제적인 페미니스트 번역자들인 수잔 바스넷을 비롯하여 바버러 존슨(Barbara Johnson), 바버러 고다드(Barbara Godard), 쉐리 사이먼(Sherry Simon), 엘렌 식수스(Helen Cixous) 등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번역/여성 대(對) 원전/남성의 결합이라는 종래의 결혼 비유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 결혼에 의해 정절이란 계약이 맺어졌는데, 그것은 여성으로서의 번역과, 남편, 아버지, 작가로서의 원작 사이의 명백한 계약이었다. 그러나 그 정절은 부권중심의 가부장제 하에서 한 쪽에게만 일방적으로 부과된 것이었다. 따라서 번역이 원작을 배반할 수는 있어도 원작에는 그릇됨이 있을 수 없었다. 불충실한 번역을 지칭하는 ‘부정한 미녀’ 비유의 바탕은 원전 텍스트가 남성이고 강력한데 반해 목표 텍스트는 여성이고 종속적이라는 전제였다. 이처럼 진부한 생각에 과감히 도전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한결같이 원작을 새로운 목표의 청중을 위해 생산된 텍스트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으려는 종래의 번역관에 강력히 맞섰다. 결과적으로 페미니즘은 문학의 정전(正典)을 변형시키고, 그 정전화 과정의 재평가에 힘을 행사하며, 과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오늘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이로써 정확하고 단일한 읽기 개념에 대한 도전과 마찬가지로 원작에 대한 도전은 광범위한 포스트모던 전략의 일부가 되었다.

문학 연구가 유럽 밖에서 발전한 이래로 문학 연구의 본질과 방법론이 변화한 것처럼, 번역학도 지나친 유럽 중심에서부터 벗어나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캐나다, 인도, 홍콩, 중국, 아랍 국가들, 아프리카,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의 학자와 번역자들은 번역에 관하여 유럽과는 상당히 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것은 언어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조로 인해 번역학이란 주제를 보다 넓은 의미의 포스트 식민주의 담론으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포스트 식민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번역 관계의 불평등을 우선 중시하였다. 가야트리

샤크라보티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 테자스비니 니란자나(Tejaswini Niranjana), 에릭 셰피츠(Eric Cheyfitz) 같은 저술가들은 한결같이 번역이 과거 식민지 지배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즉 식민지에서 피지배 민족들의 목소리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식민지 모형에서는 하나의 문화가 지배하고 다른 문화들은 종속되기 때문에, 번역은 그러한 권력의 계층 구조를 한층 더 강화시켰다.

브라질의 번역학자들은 한 가지 비유를 새롭게 도입했는데, 이는 어쩌면 번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매우 적절할 것 같다. 어떤 의식을 통하여 원천 텍스트를 먹어 삼키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식인종으로서의 번역자의 상(像)이 바로 그것이다. 월 소잉카(Wole Soyinka)는 그의 시각과 전 아프리카 대륙의 시각이 높아졌다는 인식으로 변화된 것들에 대해 기술했는데, 그는 외관상으로는 무해한 문학 텍스트 속에 은연중 내포되어 있는 인종차별주의를 인지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 백인 영웅들이 야만인들에게 공격당하는 모험담을 읽으며, 그 자신이 기계적으로 미개인들과 맞서 싸우는 백인 영웅의 편이었던 점을 지적해냈다. 소잉카는 이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민족과 맞선 백인 제국주의자들의 편을 들고 있었고 유럽 중심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세상을 달리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마찬가지로, 원문 텍스트를 다른 문화 속으로 변환시키는 번역자는 그 변환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번역자를 식인종으로 보는 비유는 식인 풍습의 의의에 관한 인식의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식민주의적 번역관은 목표 문화에서의 원천 수용과 관련하여 원문이 지니는 가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음을 뜻한다. 식민주의적 번역관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제안한 번역관과도 일맥상통한다. 데리다는 원문이 시발점이라는 기존의 입장과는 반대로, 번역 과정이 원문 텍스트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결국에 번역은 문학적 조작의 한 과정인 셈이다. 벤야민의 주장대로 텍스트는 언어적 경계를 넘어서 다시 쓰이고, 이러한 다시 쓰기는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문화와 역사의 맥락 내에서 이루어진다. 앙드레 르페브르는 번역은 비평이나 역사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다시 쓰기’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1992: 13-14). 이것은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에 따르면, “이중적 글쓰기”로서 “외국 텍스트를 자국 문화가치에 따라 다시 쓰는 것”(312)이다. 번역자,

비평가, 역사가는 모두 역사의 같은 시간대 속에서 비슷한 제약을 받으며 텍스트를 다시 쓰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객관성의 가면 아래서 전복의 힘을 행사하는 이미지 메이커들이다. 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시 쓰기란 문학 체계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문학적 전략이다. 이제 번역은 글쓰기의 차원에서 창작과 나란히 어깨를 겨눌 수 있게 되었다. 번역과 글쓰기를 접경지대에서 일어나는 창조 행위라고 간주하는 웨리 사이먼은 민족간, 국가간에 문화적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번역과 글쓰기는 점차 단일한 창조 과정의 일부가 된다”(72)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는 번역학이라고 알려진 신생 학문이 그 터전을 다진 시기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번역학은 1970년대 후반 세계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해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누구도 더 이상 번역학을 가리켜 부수적이거나 비과학적인 학문 분야라고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 1980년대 전반에 걸쳐 번역의 이론과 실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더니 1990년대 이후 번역학이 드디어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 매김을 하면서 전 세계에 걸쳐 번역 현상에 대한 탐구가 더 이상 동질적인 방향이 아니라 심도 있고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1980년대 에른스트-아우구스트 구트(Ernst-August Gutt)의 ‘관계성 이론,’ 카타리나 라이스(Katharina Reiss)와 한스 페르메어(Hans Vermeer)의 ‘스코포스 이론,’³⁾ 기디온 투리(Gideon Toury)의 ‘의사(疑似) 번역’에 관한 연구는 모두 번역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하였다. 그런가 하면 1990년대는 모나 베이커(Mona Baker)가 표명한 이른바 코퍼스⁴⁾ 번역 연구에 커다란 관심이 일면서 독

3) 의사소통이론, 행위이론, 텍스트 언어학, 텍스트 이론, 수용 이론(reception theory)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번역 이론의 한 가지 접근법으로 1970년대 후반 독일에서 전개되었으며, 이 이론의 창시자는 한스 페르메어(Hans Vermeer)이다. 번역을 둘러싼 상황적 맥락 요인들은 의도된 목표 텍스트의 독자와 번역 의뢰인의 문화와 특히 목표 텍스트가 그 문화권에서 독자들에게 이행해야 할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다. 번역 활동을 인간 행위 가운데 하나의 특별한 양식으로 보는 스포코스 이론은 번역도 인간의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목적을 ‘skopos’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skopos’는 그리스어로서 ‘aim’ 또는 ‘purpose’라는 의미인데, 어떠한 행위도 그에 대한 결과가 존재하며 이를 ‘translatum’(번역된 텍스트, 또는 translat)이라고 한다.

4) 라틴어 ‘corpus’는 ‘body’라는 뜻으로 ‘any body of text’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한국어

특한 연구 분야의 장을 새롭게 열었는데, 그 열기는 지금도 여전히 식지 않은 상태이다.

번역학은 여러 기술과 방법들을 다른 학문들에 빌려주기도 하고 또 그것들로부터 빌리기도 하면서 보다 확고하게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언어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번역학자들, 그 가운데 저명한 몇몇 이름을 들자면 모나 베이커(Mona Baker), 로저 벨(Roger Bell), 바실 하팀(Basil Hatim), 이안 메이슨(Ian Mason), 키르스텐 말름캐어(Kirsten Malmkjaer), 카타리나 라이스(Katharina Reiss), 한스 페르메어(Hans Vermeer), 볼프람 빌스(Wolfram Wilss)와 같은 사람들은 학문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번역학을 대립의 입장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크게 공헌을 하였다. 물론 이들의 연구가 번역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성장하기 이전에 번역을 연구한 학자들, 그러니까 J.C. 캣포드(Catford), 마이클 헬러데이(Michael Halliday), 피터 뉴마크(Peter Newmark), 유진 나이다(Eugene Nida) 같은 대학자들이 세운 초석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IV. 나오며

두 언어가 만나는 번역의 현장은 결코 허공이나 진공 상태가 아니다. 두 문화 체계 속의 전통이란 맥락이다. 그렇지만 한 문화에서 가치 있는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불일치를 화해시키기 위해 번역자는 스스로 능동적인 글쓰기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복잡한 번역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번역자가 두 언어의 상용(常用) 능력뿐만 아니라 양국 문화에 대해 통찰력 있는 비전을 갖는 것이다. 번역자들은 의미의 전환 과정에 나타나

로는 종종 ‘말뭉치’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코퍼스란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필요하고 현재 유용되고 있는 자료, 즉 텍스트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학 작품 한 권, 혹은 특정 작가의 작품집 자체도 코퍼스라고 할 수 있고, 촘스키 이전의 기술언어학적 언어 연구 방법에도 수작업이지만 코퍼스가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 코퍼스라 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언어 자료로서, 다양한 장르가 균형 있게 확보된 자료의 집합체를 일컫는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학적 연구 및 교육에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코퍼스를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다.

는 부조화들을 극복하려고 시도하면서 이데올로기와 도덕 체계, 사회-정치 구조 등을 포함하는 문화들 사이에서 창조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번역자가 마침내 원전을 번역해냈을 때 비록 그것이 원전의 문자에 가장 근접한 번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번역자가 주체가 되어 그의 관점에서 해석한 원전이 되는 것이다. 번역이 번역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의 관점이 반드시 자기만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번역자 역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제약을 받고, 이질적인 두 문화와 두 언어가 갖는 특성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래 번역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화적 경향”(Simon 7)이었다. 번역학이 언어학뿐만 아니라 해석학, 서술학, 미학 등 여러 다른 분야의 도움을 받고 그것들의 방법론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학제간 현상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수잔 바스넷은 차라리 “문화간 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1993: 158)이라고까지 주장한다.

1980년대까지 많은 번역 연구의 특징이었던 번역에 대한 문화적 접근 방식과 언어학적 접근 방식의 뚜렷한 구분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 이는 언어학이 보다 공공연하게 문화적 경향을 띠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문화사에 바탕을 둔 번역 접근 방식을 주창한 사람들이 이제 그 입장에 덜 방어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번역학이 새롭게 형성되던 초창기에 번역학 옹호자들은 언어학자와 문학 연구가들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었다. 그들은 언어학자들이 보다 넓은 차원의 문맥을 생각하지 못하고 문학 연구가들은 쓸데없는 가치 판단에 사로 잡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번역에 대한 연구를 응용 언어학이나 비교문학의 산하에서 끌어내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아울러 독자적인 번역학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격렬한 논쟁들이 일어났다. 번역학이 발생 초기에는 언어학의 하위 구조로 여겨졌지만 지금에 와서는 학제간의 연구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언어와 생활 방식 사이에 분리될 수 없는 연관성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또한 지난날의 비교문학에서 원전과 번역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주종의 관계였다. 그러나 번역이 능동적인 글쓰기 영역으로 진입한 오늘날의 번역학에서 그 둘의 관계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더 이상 번역학을 두 문화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비교문학의 세부범주로 보기는 어렵다. 비교문학이 번역학을 포용하기에는 번역이 지나치게 역동적인 주체적 분야일 뿐만 아니라 비교문학은 오랫동안 형식주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헤어 나오지 못

하는데다가 그 주창자들은 여전히 위대한 정전(正典)의 지속을 굳게 신봉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번역학은 비교문학과 오랜 갈등 관계를 마무리하고 둘의 관계에서 비로소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번역학에서 자주 거론되던 ‘굴절’이란 용어는 비교문학의 기본 용어인 ‘영향’을 대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반영이 비추기, 즉 원본의 복사를 의미한다면, 굴절은 인식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는 텍스트가 하나의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건너갈 때 발생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유익한 이미지이다.

문학 번역은 그 자체가 문학사의 한 해석이자 평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번역은 이미 문학 작품에 대한 훌륭한 해석이다. 그것은 번역 작품이 흔히 기존 문학에 변화와 혁신을 주는 동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번역 작품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우리의 문학적 관점의 이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에 번역자의 기능은 주어진 텍스트 읽기나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전달에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번역자는 단순히 언어를 치환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언어학자와 문학비평가와 작가를 결합한 이른바 종합적인 인문학자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 번역에 대한 관심도의 증거는 국내외에 걸쳐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⁵⁾ 한때는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번역이 이제 인간관계의 기본 활동으로 여겨지고 그 어느 때 보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번역에 대한 연구 또한 전 세계에 걸쳐 나날이 증가일로에 있다. 특별히 전자 미디어의 팽창과 더불어 세계화 과정에서 문화 상호간의 소통 문제가 강조되고 정보 혁명을

5) 적어도 여섯 권 이상의 번역 대사전을 비롯하여 엄청난 분량의 번역 관련 서적들이 지난 20년 동안 쏟아져 나왔고, 번역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저널들이 발간되었으며, 유럽번역학회와 같은 국제적인 번역 전문 단체들이 생겨났다. 아울러 홍콩, 브라질, 몬트리올에서 비엔나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학에서 번역 관련 강좌들이 새롭게 개설된 것은 번역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증거가 된다. 한편, 국내에서도 번역에 대한 열기는 다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번역학회와 같은 통번역 관련 학회가 속속 출현하여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번역 저널을 통해 번역 연구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국외국어대를 비롯하여 5개 대학에 통번역 전문대학원이 개설되어 번역전문가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세종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교의 일반대학원에 번역학 석·박사 전공이 개설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번역학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통해 더 넓은 세계에 접근하는 일이 절실해지면서 번역은 점점 더 파편화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도구로 발돋움하였다.

새천년 시대에는 정치적이고 지리적이며 문화적인 경계가 근세사(近世史)의 그 어느 때보다도 유동적이고 덜 구속적으로 인식되며, 그러한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동이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에서 번역자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이 점이 바로 왜 그토록 열렬히 번역을 논의하고 번역을 찾는 이유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의 광활한 공간 확장과 더불어 번역의 잠재력을 이제 겨우 떠올리기 시작하였다. 기계 번역이 더욱 더 정교해지듯이 번역학 또한 이처럼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번역과 관련된 그릇된 신화를 과감히 타파해야 할 때이다. 흔히 생각하듯이 번역은 외국으로부터의 문화적 충동에 대한 수동적 복종으로 간주될 수만은 없다. 오히려 그것은 적극적이고 심지어는 공격적인 행위로서, 외국의 문화적 가치까지도 자국 실정에 맞게 응용하고 변용시킨다. 그러므로 번역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완전한 자리를 구축할 때, 그것은 세계 문화의 발전에서 중요한 형성적 힘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박용삼 옮김. 1990.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숭실대학교 출판부 (Werner Koller,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3. Aufl., Quelle & Meyer Verlag Heidelberg · Wiesbaden, 1987).
- Bassnett, Susan. 1993. *Comparative Literature: A Critical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 Bassnett, Susan. 1991.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ell, Roger T. 1991. *Translation and Translating: Theory and Practice*.

-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Benjamin, Walter. 1968. *Illumination*. Ed. Hannah Arendt. Trans. Harry Zohn. New York: Schocken.
- Coleridge, S.T. 1907. "On Poesy and Art." *Biographia Literaria*, II. Oxford: Clarendon Press.
- Dryden, John. 1992. "Preface to Ovid's Epistles." *Translation / History / Culture: A Source Book*. Ed. André Lefeve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02-105.
- Even-Zohar, Itamar. "Translation Theory Today." *Poetics Today* 2-4 (Summer/Autumn 1981): 1-7.
- Fitzgerald, E. 1957. "Letter to Cowell," 20 March.
-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Lefevere, André. 1992. *Translating Literature: Practice and Theory in a Comparative Literature Context*.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 Lefevere, André. 1978. "Translation Studies: The Goal of the Discipline." *Literature and Translation*. Eds. James S. Holmes et al. Louvain: ACCO, 1978.
- Rossetti, Dante Gabriel. 1968. "Preface to his translations of Early Italian Poets," *Poems and Translations, 1850-187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imon, Sherry. 1999. "Translating and Interlingual Creation in the Contact Zone: Border Writing in Quebec." *Post-colonial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Eds. Susan Bassnett and Harish Trivedi.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58-74.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Abstract]

The Past and Present of Translation Studies

Kim, Ji-won
(Sejong University)

The translation involves the negotiation of meaning between producers and receivers of texts. The translator's primary purpose is to relay the rhetorical meaning of source text to the receivers of target text. The diachronic study of translation is a vital part of literary and cultural history. The Bible translation, which is itself a history of western culture in microcosm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successive generations of translation.

The translation has rarely been studied for its own sake. The emergence of linguistics as a new discipline in the twentieth century is useful in shaping translation theories. Along with the linguistics-based approach to translation, the hermeneutic approach to translation began to appear in the 1930s. Since 1965, great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field of translation. We can also see the clearly defined schools of Translation Studies, which place their emphasis on the various aspects of translation.

Alternatives to both linguistics-based and hermeneutic approaches to translation, such as post-colonial translation and feminist translation have continued to appear. Finally, translation should be studied alongside what is called 'rewriting.' Writing does not happen in a vacuum; it happens in a context. As a result, the text of translation is often called a culture's window on the world. Translation is indeed acculturation.

The time has come to reconsider the status of translation beyond comparative literature. Mainly because it is such a dynamic subject, Translation

Studies has been gaining ground. In contrast, however, the comparative literature as a formalist exercise has declined in significance in recent years. Translation Studies is exploring new ground in the vast area of stylistics, literary history, linguistics, semiotics and aesthetics. This is also a discipline firmly rooted in practical application. After all, a translator should have not only a bilingual ability but also a bi-cultural vision.



▶Key Words: linguistics-based approach to translation, hermeneutic approach to translation, post-colonial translation, feminist translation, rewriting